

넷마블 글로벌 총괄사장에 이승원



넷마블은 2022년 넷마블컴퍼니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이승원 대표(사진)를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고 글로벌 총괄로 신규 임명했다. 이승원 사장이 맡았던 각자 대표에는 도기욱 현 CFO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이승원 사장은 글로벌 총괄 역할을 맡아 카바, 스핀엑스, 잼시티 등 해외 핵심 자회사 경영에 전진 배치돼 글로벌 사업 추진력을 배가할 예정이다. 도기욱 선임 각자 대표 내정자는 경영전략과 관리부문을 담당할 예정이며, 권영식 대표는 기존 처럼 계열사업총괄을 맡아 각자 대표 체제를 이어간다.

/채윤정 기자 echo@

JW그룹 올해 첫 수시채용 진행

JW그룹은 2022년 첫 수시채용을 실시하고 신입·경력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부문은 ▲의약품, 진단·영상장비, 건강기능식품 등 영업·마케팅 ▲언론홍보, IR, 브랜드마케팅, 회계, 구매, 인사 등 일반관리 ▲연구, 임상, 개발, 라이선스, IP 등 R&D ▲생산·품질·제조 관리 직군이며, 오는 13일까지 JW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이세경 기자 seilee@

국민대학교 김희선 교수 ‘국무총리 표창’



국민대학교는 김희선 교양대학 교수(사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김희선 교수는 국악과 월드뮤직 전문가로서 한국음악의 세계화에 힘쓰고 동시에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전통음악학회 동아시아음악연구회 회장직으로 선출되는 등 한국전통음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현진 기자 ihj@

한국재료학회 제23대 회장에 김상섭 교수



인하대학교는 김상섭 신소재공학과 교수(사진)가 사단법인 한국재료학회 제23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신임 학회장의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1년이다.

김상섭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포항공대에서 재료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과학기술원장 정회원,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재료학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이현진 기자 ihj@

인사

◆병무청 ◇고위공무원 승진 △전북지방병무청장 권대일 ◇고위공무원 전보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장 박승홍

부음

▲이재희씨 별세, 진재식·동식·재순·순호·순영·인숙씨 모친상, 박춘삼·김국환·이진석·오봉록(한국예탁결제원 연구개발부 팀장)씨 장모상, 안금희·한옥경씨 시모상 = 9일, 메디힐 병원 장례식장 특호실, 발인 11일 오전 5시, 함백산 추모공원 02-2601-7500

▲김연중씨 별세, 김경진(전북은행 부행장)씨 부친상, 김호서(전 전북도의회 의장)씨 장인상 = 9일 오전 5시 50분,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101호, 발인 11일 오전 9시 30분 010-3677-4614

‘상법규정 위반’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효력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회사가 상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해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쳐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 여러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2011년 4월 14일 개정되기 전 구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해

명시했다.

구 상법 하의 판례는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금지규정을 위반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며,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해,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 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리하자면, 개정된 상법이 허용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 ▲상법 제341조의2 각호의 사유가 발생해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이 있다.

위 후자의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재원규제와 취득절차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정된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개정된 상법 제341조의2 제4호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

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임원퇴직합의 중 원고 회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부분 및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취득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바른

현대차, 스파이더맨 신작 흥행에 함박웃음

소니픽처스 전략 파트너십 포문
‘투싼·아이오닉5’ 여러장면 등장

현대자동차의 투싼과 아이오닉5 등이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의 흥행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서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9일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7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5만6162명(누적관객수 635만4697명)을 불러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강화로 영화관의 10시 이후 상영이 금지됐음에도 ‘스파이더맨’의 인기는 이어지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국내 코로나19 발병 이후 첫 1000만 돌파 영화가 되리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소니픽처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스파이더맨’ 제작에 참여했다. 현대차는 당시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



스파이더맨 투싼.

텐츠 등 소니픽처스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신차, 신기술을 고객들이 직·간접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파이더맨’ 속에 현대차의 투싼은 MIT 입학을 책임지는 부총장이 타는 차량으로 등장했다.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빌런이 등장하

고, 일본차 닛산, 미국차 캐딜락, 독일차 BMW, 폭스바겐, 영국차 재규어 등 다른 브랜드의 차들도 준비한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이중 파괴되지 않은 차량은 투싼이었다.

현대차 투싼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에 따른 판매량 상승도 기대된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인기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한 78만7702대를 팔았다. 그 중 현대차의 투싼은 지난해 15만949대 판매되며 미국 전체 판매를 견인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아이오닉5는 153대를 기록했다.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을 통해서도 입소문을 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가 영화와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차량을 알린다”며 “수천만명의 세계 소비자가 영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품 이미지를 각인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영화 흥행에 따른 제품 홍보효과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엔솔, 비즈니스 위기 대처능력 인정

BCMS ‘ISO22301’ 획득

LG에너지솔루션이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BCMS)’ 인증인 ISO22301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ISO22301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구축한 기준과 훈련된 행동에 따라 핵심 기능을 빠르게 복구해내는 총체적 경영 능력을 평가해 수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이번 인증을 통해 LG에너지솔루



임성환 BSI 대표이사(왼쪽), 김장성 LG에너지솔루션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션은 글로벌 배터리 선도기업으로서 고객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차별화된 위기 대응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양성운 기자

두산그룹, 이웃사랑 성금 20억 기탁

희망2022 나눔 캠페인 동참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사진)은 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하는 ‘희망2022 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이웃사랑 성금 20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 중이다. 기부된 성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두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



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크게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이웃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루빨리 일상이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2005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